

# 경제지표 최악...연말이 더 슬픈 광주·전남

### 호남권 벤처기업 6.1% 전국 꼴찌...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 광주 신규창업자 하위권...폐업신고율 대전 이어 전국 2위 경기침체·관광객 감소로 음식·숙박업 매출 0.5% 줄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돌아 보기조차 꺼려지는 지역 경제 지표가 잇따르고 있다. 열악한 지역 내 경제상황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지표들로, 지역 경제의 침체이라는 점에서 내년 지역 경제의 전환과 도약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악의 벤처생태계,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가 27일 발표한 '2018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47.7%가 서울-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주·전남을 비롯, 제주까지 포함하는 호남권 벤처기업은 전국의 6.1%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대전·세종·충청·강원 24.3%, 부산·경남

·울산 12.4%의 절반 수준으로, 대구·경북(9.5%)보다도 낮다.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6만 2000명. 삼성 등 5대 그룹의 종사자 수(75만6000명)를 웃도는 수치다. 벤처기업의 평균 종사자도 21.7명으로 전년(20.8명) 대비 4.3%(기업당 0.9명) 증가하는 등 증가세다.

벤처기업이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벤처기업이 적은 호남 지역의 일자리창출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벤처기업이 적은 데는 광주·전남의 열악한 벤처 인프라도 한몫을 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초창기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성공을 뒷받침할 신규 벤처투자 금액(2조1895억·2017년 기준)은 전체 금

액의 0.6%(14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투자 규모가 적으니 사업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창업도 최악=고용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신규창업자도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신규 창업자는 3만403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에 그쳤다.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대구(5만1258명)보다 무려 1만7221명이나 적다.

열악한 경제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창업자도 많다.

올해 광주에서는 2만6250명이 폐업 신고를 했다. 같은 기간 신규 창업자의 77.1%에 달하는 수치로, 10명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8명이 포기했다는 의미다.

특히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신고자 비율만 보면 광주는 대전(78.31%)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은 높은 폐업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4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

다. 세부적으로는 음식·숙박업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2017년 기준 서비업조사 잠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숙박업 매출액은 12조8870억원으로 2016년에 견줘 약 200억원(0.5%) 줄었다.

숙박업은 전국 사업체당 매출액이 2016년 2억3900만원에서 2017년 2억3100만원으로 800만원 줄었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7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호텔이나 콘도 등의 매출액 감소가 전체 숙박업 매출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지난달 15만명으로 올해를 제외하면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쇼크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8.44 (+0.43)	금리(국고채 3년) 1.81 (0.00)
↑ 코스닥 667.88 (+2.14)	↓ 환율(USD) 1120.00 (-5.40)

## 보해양조 구조조정 '칼바람'

### 권고사직·희망퇴직 단행

68년 지역기업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보해양조는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직 통·폐합과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함께 단행하기로 했다. 개편된 조직에 배치되지 않은 인원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구조조정 규모는 약 5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기본급 6개월 분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입사 2년차 이상, 만 58세 이하 직원에 한해 올해 말까지 희망퇴직도 받는다. 위로금은 권고사직자와 동일한 기본급 6개월분이다.

보해양조는 공지를 통해 "현재 회사 상황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참담한 실적으로 생존문제를 직결되는 위기상황"이라며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조직 통폐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에서도 아픔을 통감하고 있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이해해

### 달라"고 당부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연말에도 실적부진을 겪으며 80명 수준의 인원을 감축하며 정상화에 나섰으나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보해양조의 영업손실 규모는 올 1분기 3억원, 2분기 85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 됐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 7억원가량의 이익을 냈지만 4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보해양조는 올 해 중국 알리바바 브랜드관을 선보이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등 시장 회복에 나섰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해양조는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전국구 소주인 '참이슬' '처음처럼' 등의 선전에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해 왔고, '천년예' 등 신제품 개발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했으나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연말·연초 저가항공 타고 해외여행 가 볼까

### 제주항공 특가항공권 판매 에어서울 일본노선 할인

국내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연말·연초 '특가 항공권'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부터 '2019 여행결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가항공권을 오는 1월 9일까지 판매한다.

국내선의 경우 최저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항공권을 기준으로 ▲김포-제

주 노선의 경우 2만4700원, 국제선은 ▲인천-도쿄, 오사카 7만3900원 ▲무안-다낭 13만5700원 ▲무안-오사카 6만8900원 ▲무안-타이베이 7만8900원 ▲무안-세부 9만5700원 ▲무안-코타키나발루 11만79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8일부터 '짬 특가' 이벤트로 김포~제주 항공권을 1만6천700원에 판매한 바 있다.

에어서울도 탑승일을 기준으로 28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천-아마구치 우배 노선을 7만1600원(편도 총액)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판매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이행만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장 내년 1월 취임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장으로 이행만(52) 본부장이 내년 1월 취임한다.

신임 이 본부장은 광주인성고와 홍익대(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1년 입사, 익산지사장, 홍보실장, 감사실장 등을 지냈다. 이 본부장은 공단 내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설향딸기' 감기에방에 좋아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고객이 겨울 제철 과일인 '설향딸기'를 살펴보고 있다. 딸기의 대표 품종인 설향딸기는 과즙이 많고, 과육이 단단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비타민C가 많아 감기예방에 좋다. <롯데쇼핑 제공>



## 해양도시가스, 복지시설 가스밥솥·건조기 등 지원

해양도시가스(대표 김형순)는 27일 도시가스업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공급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가스기기와 내부시설 배관공사비를 무상지원 했다.

이번 가스기기 지원은 광주에육원, 귀빈민들레집과 노들담형제복지회, 다솜장애인, 푸른숲그룹홈, 동산그룹홈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에 가스식기세척기, 가스밥솥, 가스건조기 등 다양한 가스기기가 지원됐다.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도시가스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11개 사회복지시설에 가스기기와 내부 시설 배관공사비를 지원했다.

김형순 사장은 "가스기가지원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비영리복지기관과의 활동 무상차량지원사업의 '도시가스 민들레카'를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자세한 사항은 중앙사무국(사단법인 그린라이트) 대표번호 1670-0633과 민들레카 홈페이지(http://www.minca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